



정교회주보

제2549호

2025년 11월 2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루가 제5주일

성 아킨디노스 순교자
(제4조 • 조과 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4조 부활 찬양송 82
- 순교자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갈라디아 2,16~20 · (봉)295
- 복음경 : 루가 16,19~31 125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마태오 7,8)

사진 설명

주교 망토, 지팡이

주교의 '일상용 지팡이'(사진 왼쪽)는 주교가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의 양 떼를 지혜와 사랑으로 이끌고, 악으로부터 보호하며,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팡이는 보통 나무로 만들며, 검은색이다. 손잡이는 은이나 금속으로 된 둥근 형태이다. 이는 주교의 지위와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되는 사목적 역할을 상징한다.

망토(사진 오른쪽)는 성찬예배가 아닌, 조과, 만과 또는 성당에 장엄하게 입당하는 행렬 등에서 착용한다. 붉은색이나 자주색 바탕에 금실로 여러 장식이 수놓아져 있다. 위의 사각판들은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며, 주교가 교리를 가르치는 근거를 나타낸다. 아래의 사각판들은 복음 전파를 의미한다. 보통 성모 희보, 복음 저자들의 성화가 그려져 있다. 굵은 금실 선은 하느님의 은총과 말씀의 흐름을 상징한다.

겸손 안에서,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말하기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한국 대주교



다른 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이전 글에서 나누었던 사랑뿐만 아니라, 위대한 덕목인 겸손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쉽게 자신을 낮추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합니다. 그는 이웃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비와 동정으로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이웃이 곧바로 고쳐지기를 조급하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연약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자신의 말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인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상대의 반대 의견을 기꺼이 듣고, 자신의 말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아도 서두르지 않으며, 거절당하더라도 쓰라림 없이 받아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더 경험이 많은 이에게 기꺼이 조언을 구하고, 어려움을 지닌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말이나 태도에 잘못이 있었다는 지적을 들으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기꺼이 고치거나 한발 물러섭니다. 겸손한 사람은 고집하지 않고 인내하며, 반발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고, 잘 가르치며, 참을성이 있습니다.”(2 디모테오 2,24)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가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사랑과 진실한 겸손으로 각 사람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느님은 사랑과 겸손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압니다. 그래서 오직 전능하신 하느님께 나아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며, 그의 말은 부드럽고 감미롭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느님의 은총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이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깨우쳐 주시어, 우리가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고, 지혜와 분별로 각 사람에게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듣는 이들의 영혼을 지지해 주고, 위로하며, 이롭게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영혼 안에서

성 니콜라이 벨리미로비치(1880-1956, 세르비아의 신학자, 주교)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영혼으로 보는 눈

우리의 눈은 우리가 낀 안경만큼 봅니다.
우리의 귀는 우리가 머리에 쓰고 있는 헤드폰 성능만큼 듣습니다.

우리의 혀는 종의 추처럼 움직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의 눈이 호수와 같다면, 영혼이 없이는 그저 호수가 보는 만큼만 볼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귀가 동굴과 같다면, 영혼이 없이는 그저 동굴이 듣는 만큼만 들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혀가 종 안의 추와 같은 단순한 울림이라면, 영혼이 없이는 추가 울리는 것만큼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보기 때문에 우리 눈이 보고, 영혼이 듣기 때문에 우리 귀가 듣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생각하며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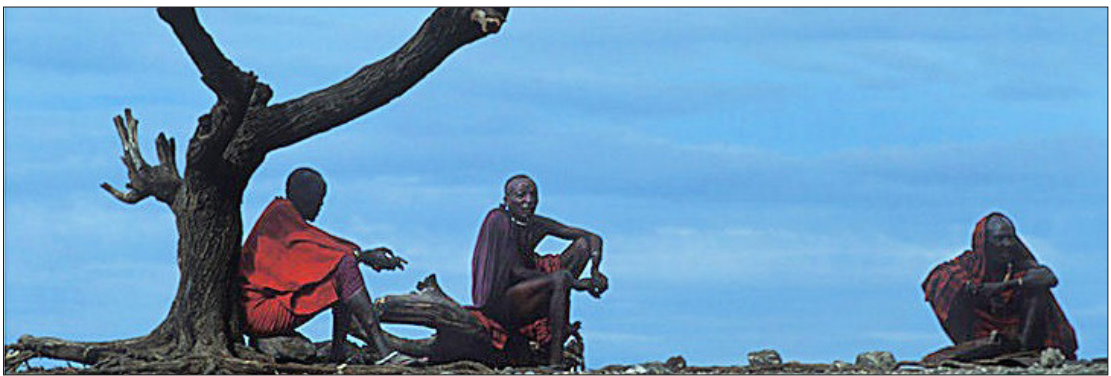
대화

과 학자가 자연과 나누는 유일하게 진실한 대화는, “내게 자연에 대해 말해다오. 너는 누구인가? 그럼으로써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도록.”입니다.

역사가가 역사와 나누는 유일하게 진실한 대화는, “내게 역사에 대해 말해다오. 너는 누구인가? 그럼으로써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도록.”입니다.

성인이 하느님과 나누는 유일하게 진실한 대화는, “제게 하느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그럼으로써 제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도록.”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확실한 대답은, “사람이여, 너 자신 안에서 너를 발견하도록 힘쓰라.”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할 뿐 아니라, 동물들도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은총이 한번 내리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열광시켜서 마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존재들(사람과 동물)이 당신을 사랑할 뿐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고 흠모하는 주님의 순수하고 흠 없는 얼굴이 당신에게 새겨질 것입니다.

- 성 암필로히오스, 그리스 파트모스 섬의 성 요한 신학자 수도원장(1889-1970)

주간 예배 안내

* 11월 8일(토)

성 미하엘, 성 가브리엘 대천사와 천상의 모든 천사들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2026년 축일달력 발간

내년 축일달력이 발간되었습니다. 주제는 ‘거룩함에 대한 갈망’으로, 최근에 시성된 성인 열두 분에 대해 소개합니다. 성인들을 본보기 삼아 우리도 삶의 목표를 ‘거룩해지는 것’으로 삼고 새해에도 거룩함을 향한 영적 투쟁을 이어 나가도록 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것은 탁상용 국문 달력으로, 1부당 7,000원입니다. 각 성당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탁상용 영문 달력과 벽걸이 국문 달력은 추후 발간 예정입니다.

알림

수요일 영성 강론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온라인(Zoom)으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영성 강론이 진행됩니다. 현재 뿌르피리오스 성인의 저서 ‘향기로운 삶과 말씀’을 함께 읽어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영적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 일상의 신앙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참여하여, 영적 발전을 이루도록 합시다. Zoom 링크 문의는 각 성당 사무실이나 아가티 수녀에게 해주십시오.

나창규 다니엘 대신부 소식

건강상의 이유로 수술을 받았던 나창규 다니엘 대신부께서 하느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퇴원하셨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성당 주일 프로그램 안내

매 주일 성찬예배 후, 선교회관에서 사랑의 오찬이 있습니다. 이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신앙 강론이 이루어집니다. 이후에는 신데즈모스 및 예비신자 모임, 영어권 신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구복회 모임은 한 달에 두 번(둘째 주일, 넷째 주일) 있고, 장년회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첫째 주일)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성의 샘터

스스로 물어보기

어떤 사부가 조언했다.

“그대의 마음속에서 영적 고취가 느껴지면 그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혹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져서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슬픔과 눈물을 보내주시는 것인가?’

생이 끝날 때가 되면 사탄이 그 사람을 악에 빠뜨리려고 더 발악하듯이 하느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